

공약 예산반영 '영남 90% vs 전남 5.8%' ... "호남홀대 아니다" 우기는 與

국감 초점

전라남도

지난 3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관련 예산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등을 둘러싸고 '호남 홀대' 논쟁이 벌어졌고, F1 누적 적자와 도의 부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호남 홀대' 여야 공방=이날 '전남도의 박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 불균형으로 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맞서는 등 때아닌 '호남 홀대' 논쟁이 벌어졌다.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지방사업 중 전남도는 신청액 중 5.8%만이 반영됐지만 영남은 90% 이상 반영됐다. 이것이 현 정부가 주장하는 균형발전의 출발 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남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사업 등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나도 국회에서 예산 투쟁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살해했어"를 외쳤고, 감사반장인 주승용 위원장도 "(지적)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통합진보당 오병윤(서구) 의원의 "타당성 용역결과

"F1 적자대책 뭐냐"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전남개발공사 부채·저수지 노후 도마에

가 다른 지역과 비슷함에도 착공조차 못했거나 예산배정도 턱없이 적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의원은 "호남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홀대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 호남 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경북도 행정부지사 지낸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경북도청 부지사 재직시 전남이 예산이 많았다. 대통령 공약사업 비율은 오히려, 경북도에는 공약사업 비율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무성(부산 영도) 의원은 호남의 SOC 예산 확충에는 공감하면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수치를 말하는 것은 유감이며, 시도별 총생산이 전남이 3위이고 대구는 17번째 16위"라고 주장했다.

◇F1 누적적자 해결 촉구=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도 국감에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사안은 F1 코리아 그랑프리 적자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답을 떠나 적자폭 개선과 불합리한 대회 운영사와의 계약 관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감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구두나 서면으로 F1 관련 질의를 쏟아내면서 안행위에 이

어 또다시 'F1 국감'을 반복하겠다고.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누적 적자가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재검토해 지속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900억원대에 이르는 누적적자로 F1은 전남도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불평등 계약에 전남에 미치는 경제효과도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F1에 대한 우려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경주장 1890억원, 진입도로 200억원 등 재정 부담은 가중되지만 FOM의 일방적 태도로 적자 전남 알리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또 심재철(안양 동안구을) 의원은 "도민들 돈을 이렇게 허투루 써도 되느냐"고 질타했고, 같은 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인데 4년간 누적적자가 1902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F1의 무료 입장권 난발 문제에도 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2011년 5657장에 불과했던 무료입장권이 올해는 4배나 증가한 2



지난 3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만1685장에 달한다"며 "적자 해소보다는 성과에 치중해 관람객을 동원하려는 전시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재정에 방만한 사업=전남도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의 재정 악화도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전남개발공사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발행한 공사채 7721억원 중 지금까지 상환된 금액은 27.4%인 212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부채 절감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발공사의 2012

년말 현재 부채는 6637억원으로 2009년 4957억원에 비해 58.4% 증가했다. 올 10월말 현재는 688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늘었다. 이자 비용도 늘어 연간 이자가 2009년 135억원에서 2012년 238억원으로 76.3%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은 2012년 결산 기준 134%로 16개 광역 지자체 중 사실상 두 번째로 낮다"면서 "금융차입금 규모상 불가피하게 이자를 내고 있지만 지난해 15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내 저수지 2곳 중 1곳 남아=전남도 지역 저수지 2곳 중 1곳 이상이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라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됐다.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은 "전남 도내 저수지 3219곳 중 1960년 이전 만들어진 저수지는 1677곳(52%)에 달했다"면서 "이 중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저수지도 무려 1301곳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최근 저수지 259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재해위험이 커 개보수가 시급한 D등급

이 35곳으로 13.5%였다. C등급은 217곳, B등급 73곳이며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 ▲전남도청 공무원 징계의 77%가 음주운전(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남의 풍수해 피해복구액 3년 새 10배 급증 불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률은 전국 꼴찌(새누리당 이재재) ▲최근 개통한 전남지역 5개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대비 35% 불과, 1년 손실액 1000억원(민주당 윤후덕)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오호, 통재라!

자료요구 200여 건 ... '수박 겉핥기' 맥빠져 '재탕삼탕' 질의에 호남 비하성 발언 빈축도

전남도 국감 결산

국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31일 마무리됐지만 이미 무산된 사업을 질의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준비 미흡과 낮잠을 자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비난을 샀다.

전남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국토·교통 분야 국정감사가 14년 만에 열렸고, 의원들의 요구 자료만 2000여건에 달했지만 수박 겉핥기로 끝났다는 지

적이다.

또 지난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이 "호남은 부정적, 반대, 비판, 과거 집착 이미지가 강하다"는 등 호남 비하성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2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와 31일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부실한 준비와 대안 제시보다는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전남도의 문제점을

반복해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을 받았다.

의원당 질의 시간이 5~6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질의가 불가능했고, 31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시에 배정됐던 감사 2반이 갑자기 국감 취소로 전남도에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자료 수집조차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의원들은 짧은 질의 시간 때문에 자신들의 말만 하고 질의를 마쳤고,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모든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적자 문제를 영무새처럼 반복했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무안기업도시 등 사실상 중단된 전남도 사업의 활성화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질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31일 국감에서는 오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이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서 열리는 한옥건축박람회를 현장시찰을 다녀오고, 10여명의 의원은 아예

국감장을 떠나 오후 4시~5시30분 사이 진행된 국감의 분위기는 맥이 빠져버렸다.

또 감사 2반 의원들 중 상당수는 사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감사 1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전남도에 요구하는 등 무성의한 감사 준비로 일관했다.

지역구·고향 챙기기, 민원성 질의도 빈번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고향과 지역구와 관련된 도로 공사를 서면 질의했고, 같은 당 의원의 부탁을 받아 대신 민원성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노근 의원의 '호남은 부정적' 발언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 의원은 "호남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편역력 이보다더 좋을 순 없는데...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여수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